

대만 현대문학의 기원에 대한 연구*

— 세춘무(謝春木)를 중심으로

황선미**

<目 次>

1. 들어가며
2. 대만 신문학운동과 일본어 창작
3. 대만 최초 자유연애 소설 —「그녀는 어디에」
4. 대만 신시의 원류 —「시의 모방」
5. 나오며

1. 들어가며

일본 통치시기에 대만에서도 근대 신문학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다소 생소하다. 대만 신문학운동은 누구로부터 태동되었을까. 대만 신문학운동은 1920년에 일본에서 유학하는 대만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든 잡지 『대만청년(台灣青年)』으로부터 대만 광복(1945)까지의 문학을 지칭한다. 이 시작점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대만 신문학운동의 원형(原型)을 살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인접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근대 신문학 운동의 전개와 의미를 다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대만 신문학운동의 태동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인물 연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근대성과 근대문학이 지닌 특수성을 보다 유연하게 포괄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음을 뜻한다.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7397).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중국현대문학 강사

그렇다면 대만 신문학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세춘무(謝春木, 1902-1969)¹⁾이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세춘무의 문학 창작 시기와 대만 신문학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춘무를 읽는 일은 대만 근대 신문학의 원형을 탐색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춘무가 정식으로 문단에 데뷔한 시기는 1915년에 발발한 시라이안(西來庵) 사건이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면서 대만인들의 약 20여 년간 계속되었던 '무장 항일운동(1895-1915)'이 종식되고 '비무장항일'의 단계에 접어들던 시기였다. 일본은 시라이안 사건을 진압한 후에 1919년부터 문관 출신인 텐 겐지로(田健治郎, 1855-1930)를 대만총독으로 내세움으로써 대만 식민사회는 표면적으로 점차 안정적인 시기로 들어섰다. 대만인들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치 통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6.3법 철폐운동'(1918)이라든가 '대만의회 설립 청원 운동'(1921) 등과 같은 신문화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신문화운동은 사실상 항일 민족 해방을 위한 정치운동으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를 목표로 한 점진적이고 우회적인 계몽방식으로 대만 사회구조를 새롭게 개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세춘무가 지닌 무기는 글쓰기였다. 세춘무는 1921년부터 추이핑(追風)이라는 필명으로 창작 활동을 개시하면서 1922년에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는 1922년 7월에 대만 신문학사상 최초의 소설인 「그녀는 어디에—고뇌하는 젊은 자매에게(彼女は何処へ—苦惱若い姉妹)」(이하 「그녀는 어디에」로 칭함)를 『대만(台灣)』(제3년 제4호-7호 연재) 잡지에 발표한다. 이 소설은 근대 문명에 대한 동경, 신교육 사상, 자유연애와 신결혼관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세춘무는 소설 창작에만 머무르지 않고 1924년 4월에는 대만 신문학사상 최초의 단시인 「시의 모방(詩の眞似する)」을 동일한 잡지인 『대만』(제5년 제1호)에 발표하여, 일본에 대한 저항과 비판 그리고 사랑과 꽃을 예찬하였다.

세춘무의 「그녀는 어디에」와 「시의 모방」에 대해 장형하오(張恆豪)는 「세춘무와 그의 소설 「그녀는 어디에」(追風及其小說「她要往何處去」)」라는 글에서 “세춘

1) '세춘무'에 대한 인물 분석은 「세춘무(謝春木)의 기행문에서 나타난 조선인식 고찰」, 『중국연구』 69호, 중국연구소, 2016.12. 101-119쪽 중 '제2장 대만 최초 현대소설 작가 세춘무'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무는 대만 신문학운동의 선구자이다. 세춘무의 단편소설인 「그녀는 어디에」 및 신시 연작인 「시의 모방」은 대만 신문학사에서 기념비로 남을 만한 최초의 창작품이다.²⁾라고 서술했다. 천팡밍(陳芳明)은 “대만 신문학의 기점은 소설이든 신시이든, 세춘무로부터 시작한 것이다”³⁾, “세춘무의 소설을 대만좌익문학의 시초로 보아야 한다.”⁴⁾고 했으며, 천첸우(陳千武)는 “세춘무의 「시의 모방」 계열 작품은 ‘대만 신시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⁵⁾고 평가하며, 세춘무의 시는 대만 현대시의 원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의 서술처럼 「그녀는 어디에」는 대만 신문학의 서막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시의 모방」은 대만 신문학사상 최초의 단편 시라는 점에서 또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세춘무는 신문학운동사에서 대만 최초의 문학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신문명의 전과가가 되기를 갈망했다. 그는 ‘국민 일반에 신문명 지식을 보급’하고 ‘충명한 청년에게 신문명의 사상과 지식을 이해’하게 하겠다는 계몽주의자의 이상을 구체화하기에 이른다.

세춘무가 살았던 시대는 대만 역사에 있어 미증유의 격동기에 해당한다. 가히 변화의 시대이자 기존의 사유방식을 송두리째 뒤집어엎는 혁명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세춘무는 1915년 시라이안 무장 항일 사건—1920년 6.3법 철폐운동—1923년 12월 치경사건(治警事件)—1925년 10월 열린(二林)사건—1928년 1월 128사변—1937년 중일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고스란히 체험한다. 세춘무는 1920, 30년대 당시 문단을 풍미하고 있던 신문학운동의 선구자와 항일운동가로서 식민지 시대의 민족 아픔과 고통 받는 민중을 위해 때로는 묵묵히 글로 때로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였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세춘무는 동시대 문학가인 라이허(賴和), 양쿠이(楊逵), 장원환(張文環) 보다는 주목 받지 못했다. 세춘무에 대한 첫 연구도 대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나왔다. 기노시타 이치로(木下 一郎)는 1974년에 『세난광(춘

2) 張恆豪, 「追風及其小說「她要往何處去」, 『國文天地』第7卷第5期, 1991년, 40쪽.

3) 陳芳明, 『左翼台灣——殖民地文學運動史論』, 台北, 麥田, 1998, 30쪽.

4) 위의 책, 30쪽.

5) 陳千武, 「光復前新詩的特性」, 『自立晚報』副刊, 1982. 恒夫, 「光復前新詩的特性」, 『自立晚報』, 1983년 8월21일. 謝里法, 「王白淵——民主主義的文化鬥士」, 『台灣出土人物誌』, 台北, 台灣文藝雜誌社, 1984, 142-143쪽 재인용.

무)씨의 발자취(연표)(謝南光(春木)氏の足跡(年表))』⁶⁾라는 글에서 세춘무의 행적에 대한 연표를 만들어 정리하였다. 그 뒤로 세춘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십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⁷⁾ 하지만 대부분 중국에서의 항일운동과 사회주의 활동 그리고 왕바이위안(王白淵)과의 교류에 집중되어 연구되어 왔으며, 「그녀는 어디에」와 「시의 모방」은 대만 신문학운동사에서 최초의 소설과 시라는 사실만 강조되어 언급되어왔다.

1921년 타이베이사범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세춘무는 도쿄고등사범학교에 유학하면서 1925년까지 4년간을 도쿄에서 보냈다. 도쿄 유학 체험은 세춘무에게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숙명을 자각시켜주었다. 「그녀는 어디에」와 「시의 모방」은 유학시절에 집필한 것이다. 타이베이사범학교에 재학 시절에 이미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세춘무는 일본에서도 대만문화 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대만의회기성동맹회(台灣議會期成同盟會)’(1923.02), ‘동경대만청년회(東京台灣青年會)’(1923.07), ‘대만청년회 총간사(台灣青年會總幹事)’(1923.12), 또한 ‘대만문화협회(台灣文化協會)’의 회원으로 ‘대만문화협회’가 주최했던 ‘문화강연회(文化演講團)’에도 참여하여 대만에서 여러 번 강연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6) 木下 一郎, 『謝南光(春木)氏の足跡(年表)』 日中 4-9, 1974. 9, 59-62쪽.

7) 陳千武, 「台灣新詩的演變」, 鄭炯明編, 『台灣精神的舉起—「笠」詩論選集』, 高雄, 文學界雜誌, 1989.

何義麟, 「被遺忘的半山—謝南光(上, 下)」, 『台灣史料研究』 第3號, 1994. 2.

何義麟, 「台灣知識人の對日觀—謝南光と王白淵を中心として」, 『淡江史學』, 1999.

康 原, 「台灣新文學的實驗者謝春木先生」, 『國立中央圖書館台灣分館館刊』, 2000.

柳書琴, 『荊棘之道: 旅日青年的文學活動與文化抗爭』, 國立清華大學中國文學系博士論文, 2000.

柳書琴, 「帝都的憂鬱—謝春木的變調之旅」, 『台灣文學學報』, 2001.

柳書琴, 「地平線的彼方: 謝春木、王白淵吹奏的祖國福音」, 『成功大學歷史學報』, 2006.

何義麟, 『跨越國境綫: 近代台灣去殖民化之歷程』, 台北, 稻鄉, 2006.

蕭水順, 「謝春木: 台灣新詩的肇基者—細論追風與台灣新詩的終極導向」, 『彰化文獻』, 2006.

賴婉蓉, 『謝春木及其作品研究』, 國力台灣師範大學台灣文化及語言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11.

呂興昌, 「謝春木與台灣新文學的發軔」, 賴和紀念館: http://cls.hs.yzu.edu.tw/laihe/CI/C12_011cd.htm.

‘대만민보’ 기자로 활동했으며 128사변 후에는 동인과 더불어 『화련통신사(華聯通訊社)』라는 잡지도 창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자료들로부터 세춘무의 문학 활동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만 신문학운동사의 원형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만 최초의 창작품인 세춘무의 소설과 시의 독해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만의 근대 문학의 원형을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대만 신문학의 서막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 맞는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세춘무의 위치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만 신문학의 원형을 추적함으로써 새로운 동아시아 담론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대만 신문학운동과 일본어 창작

대만 신문학의 원형을 이해하려면 우선 1920년대 문학 창작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일본 통치시기 대만 신문학운동의 원형과 일본어로 창작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당위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 신문학운동에 대해 최초로 논한 글은 천신(陳忻)의 「문학과 직무(文學與職務)」(1920. 7)이다. 그는 이 글을 『대만청년』 창간호에 발표하였다. 천신은 이 글에서 문학의 위치와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효용성에 대해 설파하였다. 천신의 이 글은 대만 신문학의 탄생을 알리고 일본 통치시기 대만 신문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었다. 이어서 간원광(甘文芳)은 일본어로 쓴 「실사회와 문학(實社會と文學)」(1921. 9)이라는 글을 『대만청년』 제3권 제3호에 발표하였다. 간원광은 천신과 마찬가지로 문학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천판밍(陳端明)은 「실용문 고취론(日用文鼓吹論)」(1921.12-1922.01 연재)에서 대만 작가들은 중국에서 새로 일어난 백화문을 배워서 ‘용감하게 문학을 제창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판밍은 중국의 5·4운동을 최초로 대만에 소개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신문화운동을 영향 받아 대만에서의 백화문 창작을 주

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신문학운동에서 등장한 최초의 창작은 세춘무의 일본어 소설인 「그녀는 어디에」이었다.

대만 신문학의 발전과 1917년의 중국 신문학운동은 모두 19세기 말엽의 국제적 상황과 내부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새로 일어난 사조들과 민족자결운동의 영향으로, 문학을 통해 '정체되어 있던 구전통의 근본을 새로운 문화로 대체하려는' 신문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중국의 신문학운동과 대만의 신문학운동의 발생은 다소 시기 차이가 있지만, 야기된 효과는 대략 비슷했다. 저우처쥬(周策縱)은 중국의 5·4운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5·4의 성과는 이데올로기 변화에 있었다. 전통적인 정치구조와 농업 경제가 새로운 공, 상업으로 대체되면서 신사와 지주 및 관료들은 더 이상 그들의 혁혁한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수많은 지식인들도 이들과 같은 출신이었지만, 공, 상업의 지지 하에 그들 역시 새로운 기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분투했다. 이러한 변화는 실로 놀라웠다. 전통적인 모든 것들이 동요되고 심지어는 모두 사라져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었다. 이 새로운 변화는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었으며 문인들의 포부와 시야 역시 점점 넓어져갔다.⁸⁾

이러한 특징은 1920년에 시작된 대만 신문화운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양자 모두 '계몽운동이 지닌 최대의 과제'와 직면했다는 점이다. 예스타오(葉石濤)의 말을 예로 들면 "그것은 구시대의 어문을 개혁하고 구어화 된 백화문을 채용함으로써 대중들이 배우고 쓰기 쉬운 백화문을 통해 세계의 신사조를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민족정신을 발양하게 하는 것이었다."⁹⁾ 다시 말해 당시 대만에서 언어(문자) 혁명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다.

일본 통치시기 대만에는 다양한 글쓰기 언어가 존재했다. 라이허(賴和) 등이 사용했던 고전 한문학, 장위권(張我軍) 등이 사용했던 중국어 백화문과 세춘무 등이 사용했던 일본어 그리고 차이페이훠(蔡陪火) 등이 사용했던 대만어 등이다. 이처럼 다양한 언어적 환경 속에서 대만의 신지식인은 하나의 언어를 선택하여 창작

8) 周策縱, 『五四與中國』, 台北, 時報, 1979, 231쪽.

9) 葉石濤, 『台灣文學史綱』, 高雄, 文學界, 1987, 21쪽.

하고자했다. 대만 일부 신지식인들은 대만어를 사용하여 문학을 전파하고 대만 신문화라는 이데올로기적 구조를 확립하고자 했다. 하지만 '대만화문(話文)논쟁' 과정에서 특히 대만 백화문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빈번히 제기되었다. 한편 한문의 경우 일부 지식인 사이에서 주요한 문자도구로 이용되었지만 그로 인해 '특권계급의 언어'로 간주되는 면이 있었다. 더욱이 5·4운동의 영향으로 근대적 언문일치의 맥락에서 중국의 백화문이 부상했지만, 이 또한 언어로서의 체계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어 교육이 실시되었고, 거기서 성장한 일부 작가들에게 일본어는 체계성이 부족한 기존의 언어를 대신하는 대안적 언어로 비춰졌다.¹⁰⁾

일본어로 쓴 세춘무의 「그녀는 어디에」와 「시의 모방」을 대만 신문학사상 최초의 소설과 시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대만 학계의 부정적인 측면도 여전히 존재한다. "일본어로 쓴 주이핑의 시를 대만 신시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에 대해 언어적 측면에서 여전히 논의할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역사적인 사실과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반론을 제기하였다.¹¹⁾ 다언어 환경 속에서 확실한 하나의 '모국어'가 없었던 당시 대만 상황에서 대만 신문학의 최초의 작품이 일본어로 창작되었다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구조 속에서 세춘무는 일본어로 「그녀는 어디에」와 「시의 모방」을 창작, 발표하였다. 「그녀는 어디에」는 1922년 7월 10일에서 10월 6일까지 『대만』 제3년 제4호에서 7호까지 연재되었다. 「시의 모방」은 1924년 4월에 『대만』 제5년 제1호에 게재된 단편 시로 안에는 4수 즉, 「번왕을 찬미하다(番王を讚美する)」, 「석탄을 찬양하다(石炭を稱へる)」, 「사랑이 성장하다(戀は成長する)」, 「꽃 피기 전에(花咲く前)」가 수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에」는 대만 신문학사상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선 고찰해보도록 한다.

10) 서동주, 「식민지 청년의 이동과 근대문학—타이완 청년의 일본어 잡지 『포르모사』를 중심으로」, 『일본사상』 26호, 2014, 273쪽.

11) 蕭水順, 「謝春木：台灣新詩的肇基者—細論追風與台灣新詩的終極導向」, 『彰化文獻』, 2006, 55쪽.

3. 대만 최초 자유연애 소설 —「그녀는 어디에」

20세기 초 대만 신지식인은 새롭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 처해있었다. 이들은 세계적 조류와 신문명을 맞이하기 위해 '옛것보다는 새것이 낫다'라는 다윈(Darwin)의 진화론적 관점을 수용하여 사회개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움'은 시대가 추구하는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진보를 의미했으며, '전통'은 낙후의 상징이었다. 대만 신지식인들은 예교(禮敎)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인륜(人倫)을 봉건적 속박으로 간주하여, '비효론(非孝論)'과 '자유연애'를 요구하면서 인간의 해방을 주장하였다.¹²⁾ '자유연애'는 자신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의지대로 신분과 조건에 따라 맺어져 왔던 결혼제도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당시 지식인들은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통해 개인의 자유의지를 입증할 수 있다고 믿었다.

대만에서 '연애'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 9월 8일에 『대만청년』에 게재된 평화잉(彭華英)의 「대만에 부녀문제가 있을까?(台灣に婦人問題があるか)」라는 글에서이다. 평화잉은 이 글에서 '여성문제'와 '노동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로 간주하였다. 평화잉은 여성의 인격과 능력 그리고 여성의 권리를 사회가 인정해야 하며,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는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녀는 여성의 교육을 통해 사회에 만연된 남존여비와 같은 구관념을 타파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부모의 의지대로 조건에 따라 맺어져왔던 결혼제도에 반대하며 남녀의 자유의지에 따른 자유연애를 주장하였다. 전제결혼, 매매결혼, 강제결혼 등과 같은 여성을 상품화하는 악습은 문명화된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없애야 할 구습이라고 강조하였다.¹³⁾

이처럼 1910, 20년대 대만에서는 여성문제를 사회의 중요한 해결 과제로 간주하고 여성해방을 전개하였다. 다양한 신문이나 잡지들은 '혼인자주(婚姻自主)'라는 주제를 내걸고 새로운 공론장을 형성해나갔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자유연애'

12) 須文蔚, 『文學@台灣——11位新銳台灣文學研究者帶你認識台灣文學』, 國立台灣文學館, 2008, 41-42쪽.

13) 黃善美, 「1920年代臺灣中國朝鮮啓蒙論述比較研究——以謝春木、周作人、李光洙為研究對象」,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學系博士論文, 2016, 132쪽.

를 기초한 결혼을 주장하며, 자녀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집안끼리 행해지는 중매 결혼 등을 개량되지 않은 구습으로 지적하였다. 심지어 부권사회 구조 속의 '가정'을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신문 매체들은 여성들을 울 가 메고 있는 매듭을 여성 스스로 풀어야만 여성의 해방과 자각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세춘무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춘무는 대만 신문학에서 자유연애의 문제를 최초로 다루었다. 그는 1922년에 「그녀는 어디에」를 발표하여 구식결혼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상양(向陽)은 『20세기대만문학금전·소설권·일제시기(二十世紀台灣文學金典·小說卷·日治時期)』에서 “주이핑은 강렬한 반봉건의식을 가지고 구혼인 제도에 서 구속받는 대만여성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여주인공은 마침내 약혼을 파기하고, 일본 유학길에 오르면서 혼인과 행복의 자주권을 추구하였다. 소설은 식민지 반봉건, 반제국에 대한 대만 작가 의식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부권에서의 해방을 도모하였다.”¹⁴⁾라고 평가하였다. 「그녀는 어디에」는 세춘무가 구상한 신결혼관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식민지였던 대만 사회의 정치, 문화적 현상과 그 면모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작품¹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세춘무는 「그녀는 어디에」서 구도덕관과 새로운 도덕관의 마찰현상 속에서, 자유연애와 자유결혼관의 모색 그리고 주체화 과정을 들여다본다.

「그녀는 어디에」는 주인공인 청평(淸風)과 구이화(桂花)의 기구한 사랑의 운명을 다룬 것으로서, 구이화를 통하여 부권적인 유교윤리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여인의 희생과 그로부터의 개체적인 자각을 다루고 있다. 세춘무는 특히 여주인공인 구이화에 주목하였다. 이 여성의 비참한 운명을 통하여 '전통여성'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라는 대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구이화는 신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다. 세춘무는 구이화를 완전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구이화는 대만에서 어느 정도 근대식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비록 근대학교에서 신교육을 받았지만 주체적이지 못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결정하는 '반봉건'적 인물이다.¹⁶⁾

14) 向陽, 『二十世紀台灣文學金典·小說卷·日治時期』, 台北, 巨流圖書公司, 2001, '導言'.

15) 國立台灣文學館, <http://www.nmtl.gov.tw/>

구이화와 칭평과의 정혼은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칭평을 사윗감으로서 마음에 둔 어머니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결혼의 결정 역시 어머니의 결정을 따른 전통적 강제 결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세춘무는 구이화를 신여성이라는 외관과는 달리 전통적 사고에 깊이 젖어 있는 인물로 설정한다. 이는 구이화가 처한 시대가 신문명이 이입되기 시작한 근대 초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시대적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춘무는 이처럼 구이화를 시대적 범위 안에서 생성, 성장시켜 간다. 당시 실생활 속에서 봉건적 결혼제도의 희생자를 고려한 배려였다고 할 수 있다.

구이화는 칭평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심적 혼란과 갈등을 겪는다. 급기야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된다. 즉 자각이 그녀의 의식 속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이화는 갈등과 혼란 그리고 자각의 과정을 통해 대만의 결혼제도 즉, 조혼, 강제결혼, 남존여비 등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용인되어 온 당대의 익숙한 삶의 형태가 하나씩 낯설은 '풍경'으로 창출되기 시작한다. 이에 구이화는 혼인관습의 부당함을 개혁해야 한다고 자각하기 시작한다. "다시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어. 이것은 엄마의 잘못도, 칭평의 잘못도 아니야. 모두 사회제도의 잘못이고, 전체 가정이 잘못된 거야. 나는 희생자 중의 한 명일뿐이야. 지금 나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사촌 오빠가 말한 것처럼 대만의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제도로 인해 울고 있을까. 나는 이들을 위해 싸울거야. 용감하게 투쟁할거야"¹⁶⁾ 구이화는 진정한 여성의 해방은 나 개인의 자유와 해방만이 아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속한 사회 전체가 개선된 평등한 사회, 즉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만이 진정으로 여성들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기에 이른다.

구이화는 약혼자였던 칭평에게 파혼을 당하지만 이 파혼이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 그녀는 퇴혼을 당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진정한 개인성을 구현하게 된 것이다. 그녀가 가려고 하는 길은 바로 자신과 자신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불리한 운명에 대항하기 위한, 잘못된 사회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불합리한 사회와의 투

16) 黃善美, 앞의 논문, 134쪽.

17) 鍾肇政、葉石濤編, 『光復前台灣文學全集:一桿秤仔』, 遠景出版, 1979, 28쪽.

쟁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대만 신시의 원류 — 「시의 모방」

대만신시운동은 대만 신문학과 함께 등장했다. 시인은 시대적 조류에 맞춰서 시대와 사회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대만 신문학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일제 강점기 대만 신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전되었다. 1924년 4월 세춘무는 주이평이라는 필명으로 「시의 모방」이라는 단시 4수를 일본어로 창작하여 『대만』 제5년 제1호에 발표하게 되면서 대만 신시의 원류를 열었다. 일본어 신시가 대만 신시를 발전시켰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는 대만 신시의 복잡성을 설명하며, 동시에 식민지시기에 존재했던 대만 신시와 문학의 다양성을 드러낸다.¹⁸⁾

대만 문학사상 최초의 시는 세춘무의 「시의 모방」이다. 「시의 모방」은 4수로 이루어진 연작시로, 「번왕을 찬미하다(番王を讚美する)」라는 시가 첫 수이다.

나는 그대를 찬미한다.
 그대는 그대의 손, 그대의 힘으로
 그대의 왕국을 세운다.
 그대는 아내를 쟁취하고
 그대는 남의 공로를 가로채지 않는다.

나는 그대를 찬미한다.
 그대는 위선적이지 않으며, 그대는 숨기지 않는다.
 그대가 바라는 바를 바라고
 그대가 사랑하는 바를 사랑하고
 그대는 허세 부리지 않는다.¹⁹⁾

18) 須文蔚, 앞의 책, 103쪽.

19) 蕭水順, 앞의 글, 56쪽 재인용.

‘혁명’이라는 말을 즐겨 외치던 한 청년의 표정에 검은 그림자가 깃들었다. 더 이상 ‘혁명’을 얘기할 수 없었던 시대, 국가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기를 슬퍼하는’ 한 청년의 얼굴에 비장한 눈빛이 담긴다. 이 시에는 한 평생을 유토괴아를 세우려고 갈망했던 세춘무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번왕을 찬미하다」는 원주민 지도자에 대한 찬미를 통하여 일본 식민지에 놓인 대만인의 비애와 슬픔을 표현한 시이다. 유엔 169호 공약에 근거하면 ‘원주민’은 ‘주류사회 혹은 현재 통치자가 유입되기 이전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의거하여 대만 원주민을 살펴보면, 대만 원주민은 네덜란드인(1624-1661), 스페인인(1626-1642), 청조 만주족(1661-1895), 일본인(1895-1945) 등과 같은 ‘이민족’들에 의해 끊임없는 통치를 받으며, 격리되거나 주변부로 밀려났다. 이 과정을 통해 원주민은 각 이민족의 횡포와 착취에 저항하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

당시 일본정부는 체계적이며 자본주의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대만의 경제적 자원을 수탈했고, 대만의 숲과 광물자원, 물, 잠재적인 관광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대규모의 토지조사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인 없는 토지나 소유권 증명 서류가 없는 토지를 일률적으로 국유지로 편입시켰는데, 그 대부분은 ‘생번지(生蕃地)’로 불리던 원주민의 토지였다. 이 과정에서 대략 2백만ha에 이르던 원주민의 생활공간은 일제가 번인소요지(蕃人所要地)라 부르던 2만4천ha의 산지 보호지역으로 축소되었고, 원주민들은 이 제한된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이곳에서 원주민들은 단지 사용권만을 보장받았으며, 영구적인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었다. 동시에 일제는 원주민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1910년부터 1914년 사이에 ‘5개년 원정’계획을 실시하여 약 1만 명의 타로코족(太魯閣族)을 학살하고, 1930년까지 지속적인 강압정책을 실시했다.²⁰⁾ 이처럼 일본인에게 땅을 빼앗긴 원주민은 자신들의 땅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다. 땅을 지키는 것은 비단 원주민만이 당면한 과제는 아니었다. 땅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20) 백영경, 정영신, 「대만 원주민 토지반환운동의 쟁점과 그 생태적 함의」,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 10, 118쪽.

세춘무도 일본에게 토지를 몰수당한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다. 1926년 11월 6일에 세춘무는 「식민정책(殖民政策)」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대만의 토지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한다.

식민지는 약자가 약자에게서 수탈하여 성립된 것이다. 홍콩과 필리핀도 그러하다. 대만도 중일전쟁의 결과로서 승리자의 전리품으로 일본에게 할양되었다. 또한 모(某) 나라는 원주민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그들의 소중한 토지를 갈취하고, 미신으로 현혹하여 그들의 토지를 점령했다. 이렇게 빼앗아 간 토지를 식민지로 삼아, 자국의 부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의 침략이다.²¹⁾

일본이 빼앗아간 자원은 대만 농민들에게 전대미문의 재난을 안겨주었다. 많은 농민들이 파산하여 빈곤한 상태로 내몰렸다. 토지의 운명과 농민의 운동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토지를 잃는다는 것은 생존할 뿌리를 잃는 것이나 같다. 이 시기 대만인과 일본통치자 사이에 가장 큰 모순은 바로 토지 문제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대만의 토지와 산림에 대한 약탈은 대만이 농민사회로부터 근대화공업사회로 가는 거대한 전환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은 대만 농민의 토지를 몰수하여 일약 거대한 대지주가 되었으며, 대만의 산림을 몰수하였다. 일제는 대만의 토지를 수탈하자마자 바로 대규모의 근대적 산업을 추진했다. 그 중에 제일 큰 산업은 바로 1900년에 설립된 '대만당업주식회사(台灣糖業株式會社)'이다. 이 회사는 대만 설탕업을 독점 경영할 뿐만 아니라, 잔인한 수단으로 이전까지 대만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던 농민을 착취했다. 이 때문에 1923년에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청원운동을 벌였다. 1925년에는 얼린자농(二林蔗農)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대만의 농민들은 항일운동을 잇달아 일으켰다. 세춘무는 대만 토지를 식민지라는 이유로 강제로 수탈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는 일본을 비판하면서,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의 폐해임을 강조하고 있다.

세춘무는 대만 사회를 개혁하고 민간인들을 계몽하여 원주민처럼 대만의 자주성을 쟁취하기를 주장하면서, 원주민처럼 대만인도 일본에 항거하여 새로운 '왕국'

21) 王乃信等譯, 『台灣社會運動史(1913-1936)』, 臺北, 創造, 1989, 212-213쪽.

을 건설하기를 기대하였다. 이 왕국은 물론 누구의 힘도 아닌 “그대의 손, 그대의 힘으로 세워진” 바로 대만인만의 새로운 유토피아이어야만 했다.

두 번째 시는 「석탄을 찬양하다(石炭を稱へる)」이다. “깊은 산에 꼭꼭 숨어 / 땅 속에서 오래도록 / 수만 년을 견뎌냈네 / 그대의 몸은 검어졌다 / 검었다가 차가워지며 / 붉게 변하며 익어가네 / 백금을 녹일 정도로 타오르며 / 그대는 아무 것도 남기려 하지 않았네.”²²⁾ 이 시는 자유와 저항에 관한 시이다. 첫 소절에서 중간소절까지는 석탄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후반부는 일본에 대한 항거를 거세게 타오르는 석탄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당시 대만은 1915년에 발발한 시라이안 사건이 일본군에 진압되면서 ‘무력항쟁’은 종식되고 ‘비무장항일’의 단계에 접어든 시기였다. 그러나 어느 단계이든 대만인들의 저항은 ‘기본적으로 반일민족의식에 바탕을 둔 민족자주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세춘무도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석탄처럼 민족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독립의 불을 지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다.

세 번째 단편 시는 「사랑이 성장하다(戀は成長する)」로서 사랑의 풋풋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아름답다거나 사랑스럽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너와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난다.
내일 모레도 또 만나자.
오늘은 너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내일은 너에게 매혹을 선사한다.
길지 않은 빨간 머리
크지 않은 눈
만나지 못함을 한탄한다.
정숙한 걸음걸이
고아한 미소는
항해의 불빛이 되었다.
사랑은 성장한다.²³⁾

22) 蕭水順, 앞의 글, 56-57쪽 재인용.

23) 위의 글, 58쪽 재인용.

‘오늘도 내일도 만나고, 오늘은 감동을 내일은 매혹을 선사’하겠다는 문구에서 사랑이 새록새록 넘쳐나고 나날이 피어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녀는 어디에」에서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주장했던 세춘무가 사랑의 애뜻함을 그려냄으로써 작가 자신의 확고한 가치관을 담고 있다. 마지막 단편 시는 「꽃 피기 전에(花咲く前)」로서, 꽃이 피는 모습을 입체감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여유롭게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해 내고 있다.

5. 나오며

세춘무는 대만 신문학운동사에서 첫 장을 장식하고 있는, 앞으로도 영원히 첫 장을 장식할 인물이기도 하다. 세춘무의 최초의 소설과 단시는 모두 일본어로 창작되었다. 대만의 학술계에서 일본어 작품에 대한 연구는 ‘황민문학’이라는 연구들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연구대상도 1930년대에 편중되어 있다. 2007년 일본학계 외지 문학 분야의 최신 연구서라 할 수 있는 『외지'일본어 문학』에서 편저자인 가미야 다다타카(神谷忠孝)는 ‘황민파’, ‘친일파’ 작가에 대한 대만과 한국의 연구경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식민지 지배 하에서 일본어 문학을 발표한 대만의 ‘황민파’ 작가, 조선의 ‘친일파’ 작가들에 대해 개개의 문학자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책순응처럼 보이면서도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작품도 있다. 대만에서는 ‘황민파’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²⁴⁾ 가미야 다다타카는 “국책순응”이라는 형태로 “식민지 지배 하에서 일본어 문학”을 창작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에 ‘저항’하는 작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춘무는 가미야 다다타카가 말한 것처럼 일본어로 창작했다는 이유로 그 동안 대만 문학사 연구에서 배제되어 오다가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친일/배일 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그를 재평가하려는 작업이 일어났다. 1920년대 대만 창작 언어적 환경에 의거하여 판단해 본다면 일본어로 쓰여졌다는

24) 神谷忠孝, 정병호, 『「식민지」 일본어 문학론』, 문, 2010, 19쪽.

것은 중국어 혹은 대만어로 쓰여진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세춘무의 작품은 식민지 대만인과 그 운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비판적, 현실적으로 식민제국을 향해 적극적인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 최초의 소설과 단시인 세춘무의 「그녀는 어디에」와 「시의 모방」은 “민족 자결주의 입장에서 대만 계몽운동과 합법적인 민권의 신장” 촉진을 목표로 한 ‘신민회’의 기관지였던 『대만』에 게재되었다. 세춘무는 「그녀는 어디에」서 구도덕관과 새로운 도덕관의 마찰현상 속에서, 자유연애와 자유결혼관의 모색 그리고 주체화 과정을 들여다본다. 「시의 모방」에서는 토지 제도에 대한 대만인과 원주민의 불만을 토로했으며, 사랑과 꽃에 대한 애뜻함을 나타냈다. 세춘무는 4편의 시에서 ‘찬미’, ‘찬양’, ‘사랑’, ‘성장’, ‘꽃’ 등 기쁨과 기대 그리고 희망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어휘를 사용했다. 일본 통치시기의 참담한 삶과 궁핍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다시 희망을 밝히고 싶었던 세춘무의 바람이 느껴진다.

세춘무의 「그녀는 어디에」와 「시의 모방」은 기교 상으로 보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 정치, 제도에 대한 뚜렷이 드러나는 문제의식은 후세의 대만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세춘무는 「그녀는 어디에」와 「시의 모방」을 발표한 후에 문학 창작 활동보다는 사회개혁 활동에 더 치중했다. 그의 작품을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세춘무라는 이름은 대만 문학사의 선구자로서 남게 될 것이다.

〈參考文獻〉

- 『台灣』(1922-1923), 台北, 東方文化書局覆刻, 1974.
 『台灣民報』(1923-1930), 台北, 東方文化書局覆刻, 1974.
 『台灣新民報』(1930-1932), 台北, 東方文化書局覆刻, 1974.
 謝春木, 「彼女は何處へ—苦惱若い姉妹」, 『台灣』, 1922. 7.
 謝春木, 「詩の眞似する」, 『台灣』, 1924. 4.
 周策縱, 『五四與中國』, 台北, 時報, 1979.
 鍾肇政、葉石濤編, 『光復前台灣文學全集: 一桿秤仔』, 遠景出版, 1979.

- 葉石濤, 『台灣文學史綱』, 高雄, 文學界, 1987.
- 王乃昌等譯, 『台灣社會運動史(1913-1936)』, 台北, 創造, 1989.
- 楊翠, 『日據時期台灣婦女解放運動—以『台灣民報』爲分析場域(1920-1932)』, 台北, 時報, 1993.
- 陳芳明, 『左翼台灣——殖民地文學運動史論』, 台北, 麥田, 1998.
- 何義麟, 『跨越國境線：近代台灣去殖民化之歷程』, 台北, 稻鄉, 2006.
- 須文蔚, 『文學@台灣——11位新銳台灣文學研究者帶你認識台灣文學』, 國立台灣文學館, 2008.
- 柳書琴, 『荊棘之道：旅日青年的文學活動與文化抗爭』, 台北, 聯經, 2009.
- 恒夫, 「光復前新詩的特性」, 『自立晚報』, 1983年 8月21日. 謝里法, 「王白淵——民主主義的文化鬥士」, 『台灣出土人物誌』, 台北, 台灣文藝雜誌社, 1984.
- 陳千武, 「台灣新詩的演變」, 鄭炯明 編, 『台灣精神的舉起—「笠」詩論選集』, 高雄, 文學界雜誌, 1989.
- 張恆豪, 「追風及其小說「她要往何處去」」, 『國文天地』第7卷第5期, 1991.
- 何義麟, 「被遺忘的半山——謝南光(上,下)」, 『台灣史料研究』第3號, 1994.
- 何義麟, 「台灣知識人の對日觀—謝南光と王白淵を中心として」, 『淡江史學』, 1999. 6.
- 康 原, 「台灣新文學的實驗者謝春木先生」, 『國立中央圖書館台灣分館館刊』, 2000. 6.
- 柳書琴, 「帝都的憂鬱—謝春木的變調之旅」, 『台灣文學學報』, 2001. 2.
- 柳書琴, 「地平線的彼方：謝春木、王白淵吹奏的祖國福音」, 『成功大學歷史學報』, 2006.
- 蕭水順, 「謝春木：台灣新詩的肇基者—細論追風與台灣新詩的終極導向」, 『彰化文獻』, 2006. 8.
- 呂興昌, 「謝春木與台灣新文學的發軔」, 賴和紀念館：http://cls.hs.yzu.edu.tw/laihe/C1/C12_011cd.htm
- 賴婉蓉, 『謝春木及其作品研究』, 國立台灣師範大學台灣文化及語言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11.
- 黃善美, 「1920年代臺灣中國朝鮮啓蒙論述比較研究——以謝春木、周作人、李光洙爲研究對象」,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學系博士論文, 2016.
- 國立台灣文學館, <http://www.nmtl.gov.tw/>
- 神谷忠孝, 정병호, 『「식민지」일본어 문학론』, 문, 2010.
- 백영경, 정영신, 「대만 원주민 토지반환운동의 쟁점과 그 생태적 함의」,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 10.
- 서동주, 「식민지 청년의 이동과 근대문학—타이완 청년의 일본어 잡지『포르모사』를 중심으로」, 『일본사상』 26호, 2014.

木下一郎, 「謝南光(春木)氏の足跡」, 『日中』4卷 9期, 1974.

何義麟, 「臺灣知識人における植民地解放と祖國復歸—謝南光の人物とその思想を中心として」, 東京大學總合文化研究科國際關係論修士學位論文, 1993.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 of Taiwan Contemporary Literature

— Focused on Chun-Mu Hsieh(謝春木)

Hwang, Sun-mi

It is somewhat unfamiliar that the modern new literature movement was developed in Taiwan during the Imperial Japan occupation. From whom did the new literature movement of Taiwan originate? That's right Chun-Mu Hsieh(1902-1969). Chun-Mu Hsieh grew up in Taiwan New Literature infancy, and He is an important figure who opened modern Taiwan literature, a leader of the anti Japanese movement in the Imperialist Japanese period, and a philosopher.

Since 1921, Chun-Mu Hsieh started his creative activities under the pseudonym Zhui feng (追風), and he in earnest began writing in 1922. In July 1922, he published serially the first novel of Taiwan new literature, "Where is she to the young sister who is struggling(彼女は何処へ—苦悩若い姉妹)" in the magazine 『Taiwan(台湾)』(No.4~No.7 issues), which was launched in Tokyo, Japan. He did not stay in the creation of novels, and in April 1924, he published Taiwan's first short poem, "Imitation of poems(詩の真似する)" in 『Taiwan』(Volume 1, the 5th year).

Chun-Mu Hsieh continued replacement of his identity in writers, cultural activists, journalists, commentator and political figures.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ime of Chun-Mu Hsieh's literary creation and the

formation of Taiwan's new literature. Thus, through Chun-Mu Hsieh, it is possible to look at the prototype of the new literature movement of Taiwan, and furthermore,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view the development and destruction of the modern new literature movement in East Asia such as neighboring Korea, China, and Japan from a multifaceted perspective.

Key Words: Taiwan, Xie, Chun-mu, origin of Taiwan contemporary literature, new literature movement, modern, Taiwan new poem, free love

이 논문은 2017년 10월 15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11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